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㉒8498

每週 月曜日 發行

今週 一言

깨달음을 생각하는 자는 욕망의 불꽃을 멀리 해야 한다.

<四十二章經>

登錄 7日로 마감

2學期 開講

受講신청 9~14일

9월30일 追加졸업식 擧行도

○ 9월1일부터 제2학기 개강에 들어갑은로써 대학가는 학교닭국은 새학기를 보이고 있다. 학교닭국은 1일부터 7일까지 등록을 마쳐 들을 것을 담부하고 교무과에서는 수강신청카드를 1일부터 8일까지 교부,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무과에서는 등록절차에 있어 예년과달리 경리과에서 남입금통지서를 교부받은후, 교무과에서 재학생확인검열을 받는동시에 수강신청카드를 배부받아 소정의 절차를밟아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또 교무과에서는「기간내에는 등록자등록을 못한 학생도 수강신청을 정한 일내에 마쳐줄것」을 요망했다. 이는 수강신청을 기일내에 필하지않는 일부학생들의 타성을 근절하기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는데 전체수강일수가 3분의2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기성적이 무효가되므로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마쳐야한다.

한편 69학년도 추기졸업식이 9월30일 오전10시 중앙당에서 거행된다. 이날거행되는 추기졸업식에서는 학사2백명, 대학원 석사10명(문학석사 6명, 이학석사3명), 공학석사1명) 및 행정대학원석사4명이 배출될 예정이며 현재5명이 문교부에 박사학위인가를 신청중에 있다.

中等교원강습폐막
본교 敎委공동주관

본교 사범대학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시내 中高 교원 강습 이수식이 8월21일 11시 채 이사장을 비롯, 강사들과 교사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거행됐다. 이들 일선교사들은 지난 7월23일부터 20일간 국어, 역사, 수학, 체육등 각 전공별로 4과목에 걸쳐 교사 35시간, 전공 84시간의 이수를 받았다.

이수식이 끝난후 본교 신 국어과교사 10명이 교수실에 모여 졸업생과 재학 학생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요망한다는 요지의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이수식 전날인 12시 사대에서는 교수들을 위한 각 실에서 교사들을 위한 노고를 라티를 열어 그간의 위로하였다.

軍僧6명배출
任동문善行賞수상

지난달 22일 광주보병학교에서 배출된 군승및 특수병과 장교24명등 6명의 는 교불교과학출신 군승이 배출되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졸업생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 준칙을 잘이행한 임불승등을 이 학교장상인 선행상을 받았다.

이번 6명이 임관됨으로써 군승은 68년11월에 5명, 69년 11월에 5명, 69년8월에 배출된 7명을포함하여 모두16명이 되었다.

이날 임관된 군승등명단은다음과같다.

▲임불승▲권오성▲박고승▲권기봉▲진인재▲조재수▲김용채(정의·3)군을 비롯 A파트(리더·조용제·사랑 조사및 연구)B파트(리더·이평재·영훈련을 계획해 마치고 모두 귀교했다.

新羅石佛등 발견
寺蹟記도, 울산 地區서

발굴중 울산시두부사에 나섰던 발굴단 조교 文明大씨는 보물급 가치가 있는 신라 石佛 3點을 발견했다.

文明大씨는 신라 불교사를 연구하면서 사적기 등을 포함한 11개유적을 순방답사했는데 울산시 方魚津에 있는 石佛관음상을 발견했다.

또 울산시 玉泉 珍에서 발견된 이 조각대 金銅불상과 石佛2구를 비롯하여 新興寺址 석조 佛龕 및 목판 寺蹟記 등은 이 지방 古代寺址 추측에도 크게도움이될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1~4일

▲단대회장 일후보 등록 마감 5일 오전9시~오후5시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1일~9일 9시~오후5시

▲대의원 등록마감 8일~9일 9시~오후5시

▲단대회장 일후보 소견발표및 선거(투표·개표) 10일 9시~오후5시

▲대의원 선거(신고식및 입명장 수여) 11일 9시~오후4시

▲총회장 일후보 소견발표 11일 9시~오후 1시

▲총회장 선거(투표및개표) 12일 오전 10~12시

學訓團 野營마쳐

이복현군등 5명受賞

지난 7월18일부터 안동에 들어갔던 본교 1 2학훈단후보생 전원은 4주간의 훈련을 끝내고 지난달 14일 귀교했다.

고려대·광운전자공대 ROTC생들과 함께 하계야영훈련을 마친 본교 학훈단 후보생들은 그동안 교육성적이 우수하여 14일 지에서 거행된 퇴소식에서는 이복현(化·4)군이 1등으로 참모총장상과 유엔군 사령관상을, 김승주(경영·3)군이 1년차에서 1등상을 획득하는등 본교 ROTC의수세함을크게 과시했다.

이날 퇴소식에 참석한김동일 총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야영훈련을 마친본교 학훈단 후보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2년차·수상자

▲이복현(化學·4)=1등(참모총장상·유엔군사령관상)

▲김필득(響行·4)=2등(군사령관상)

▲성영석(經營·4)=4등(사단장상)

◇1년차 수상자

▲김호주(經營·3)=1등(군사령관상)

▲김재경(統計·3)=3등(사단장상)

學生會주관 靖國祭 성황

지혜·인내·용기로 본교와 동국인을 상징하는 코끼리像지킴이 추계 성황발하게 추진되고있다.

8월24일 출학생회장 직무대리 吳出世(국·4)군과 총무 장서리宋柄旭(印·4)군등 총학생회회장단 일동은 아직까지 전등국인의 상징인 코끼리像이 교내에없다는점을 감안, 코끼리像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웠다.

吳出世군을 위원장으로한 코끼리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1970학년도졸업생일동이 모교에 남길 기념물로서 코끼리像을 건립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방법은 자립저축을 포함한 졸업생졸업비와 전교생성금, 학교당국의 보조및 교직원과 동문의성금을받아 충예산5백만원을 들여 오는 12일 건립에 착수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화강석기단과 높이6미터의 타원등형위에 길이3미터, 높이2·2미터, 폭1·2미터의 銅으로제작될 코끼리像의건립은 ①내일의약진을위한 정신적지표로삼아 새로운학풍을 이룩하고②창조의식을 고취하여 민족적 문화를형성, 동국인의긍지를 드높히고 ③중요행사때는 지혜와 용맹의 상징으로 내세워 동국의정신을 드날릴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71년2월28일 70학년도졸업식에 앞서 제막하게될 코끼리像의 건립추진위원은 다음과같다.

▲위원장=吳出世▲총무=송병욱◇위원▲박해룡(법정대학장)▲허만수(경상대학장)▲지만희(농림대학장)▲장우경(사범대학장)▲송재숙(체육부장)

黃舘長 渡日

「심포지움」참석차

黃壽永박물관장은 일본京都에서 열리는 三國遺事심포지움에 참석하기위해 지난달 23일 渡日했다.

「하바드 엔칭」연구소금에 의해 일본東方學연구원에 의해 주최하는 이번심포지움에 黃관장은 東方學연구위원장 三品彰英씨의 초청으로 渡日, 심포지움에참석하고 이달중순경 귀국한다.

孫교수向「뉴」

言語學연구하러

교양학부 영어학과 孫昊玖조교수가 뉴질랜드 국립「오클랜드」대학교 초청으로 본교에 기증, 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것이다.

높이 24·5㎝의 라한상은 頭部와 상반신이 완전히 남아있고 국내에서 드물게 보는 품위있는 인상과 월등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있어 고려 조각사연구에 전형적인 고려후기 양식을 보이고있는 羅漢像및 土製 불상 破片 10여點이 지난달 23일 본교 박물관에 기증되어왔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작품으로서는 어느 것보다 정교하고 그 표현이 풍부한이 土製 불상과 羅漢像은 불상 조각가인 申尙均씨가 오래전 북한산 古代寺跡에서 발굴하여 이번에 본교에 기증, 박물관에 소장케 된 것이다.

고려 羅漢像 기증

불상조각가 申尙均씨

귀중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평하고 있는 羅漢像과 불상들기증해 온 申尙均씨는 수년전에도 본교 박물관에 石佛一具를 기증한 바있다.

沈교수渡日

化學심포지움에

8월22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I·U·P·A·C(국제 순수및 응용화학 연맹)이 주최한 非벤젠계 화합물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한국대표로 공대沈敏厚 교수가 참가하였다.

심교수는 KIST(한국과학기술처)의 과견으로 이 심포지움에 참가하였는데, 40여개국 약8백명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다루는 심타디엔으로 부터 알킬로 펜포트류의합성」이었다.

孫교수向「뉴」

言語學연구하러

교양학부 영어학과 孫昊玖조교수가 뉴질랜드 국립「오클랜드」대학교 초청으로 본교에 기증, 박물관에 소장케 된 것이다.

높이 24·5㎝의 라한상은 頭部와 상반신이 완전히 남아있고 국내에서 드물게 보는 품위있는 인상과 월등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있어 고려 조각사연구에 전형적인 고려후기 양식을 보이고있는 羅漢像및 土製 불상 破片 10여點이 지난달 23일 본교 박물관에 기증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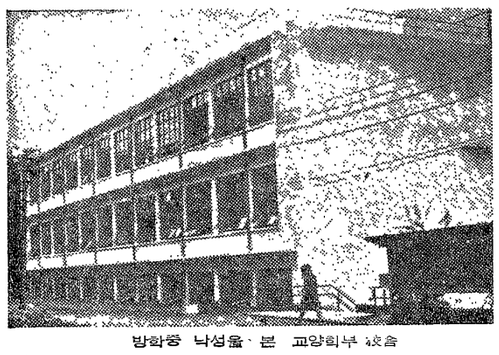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작품으로서는 어느 것보다 정교하고 그 표현이 풍부한이 土製 불상과 羅漢像은 불상 조각가인 申尙均씨가 오래전 북한산 古代寺跡에서 발굴하여 이번에 본교에 기증, 박물관에 소장케 된 것이다.

높이 24·5㎝의 라한상은 頭部와 상반신이 완전히 남아있고 국내에서 드물게 보는 품위있는 인상과 월등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있어 고려 조각사연구에

신축校舍 完工

敎養學部 신교사로 移轉

E건물은 工科大서 사용



방학중 낙성을 본 校舍교양학부 신축교사

각종 대학시설 건설에박차를 가하고있는 본교에 校舍 1동이 더 늘어났다.

작년 11월25일 기공식을 올린 교양학부 후편 신축교사가 방학중에 낙성, 마지막 손질을 끝냄으로써 새 학기부터 F건물로 命名되어 강의실로 사용할수있게 되었다.

총4천6백여만원의예산과 연4천여명의인원이동원된 1층지상3층으로세워진지하 1층지상3층으로세워진지하 1층지상3층으로 대형설계실을 비롯한 21개의 강의실과 실험실이 마련되어있다.

앞으로 교양학부 강의실로 쓰이게되며 이에따라 교양학부에서 사용해 오던 E건물은 工科大에서 실험시설및 규모를 확충하여 축적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師大 사회교육과 地理전공및 과학교육과 실험실이 과학관 108실과 233실에 각각 배정되어 신학기부터 학습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龜船型 촛대 發見

四溟堂유적조사 成果커

佛敎文化硏究所

불교문화연구소의 四溟大師 유적조사가 지난 7월말부터 8월10일까지 전남·경남지방 사찰에서 실시되어 큰성과를 거두었다.

문교부의 연구조사비 지급에따라 실시된 이번 사명대사 유적조사에서 불교문화연구소 강사 金煥泰교수와 연구원 목철수씨는 전남 대흥사, 경북 직지사, 표충사등 7개사찰과 성주 산성, 가야산성등 사명대사 거북선전투 1동 촛대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북선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李朝시대에 만들어진 높이 28㎝·지이 13·5㎝, 높이 8·8㎝의 이 촛대는 사명대사가 임란시 전해지고 있는데 완전히 거북선 모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조된 이 거북선형 촛대는 아래쪽 腹面에 당시 거북선의 제조창이었던「統營作」이라고 새겨져 있어 당시 거북선의 모형과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학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東國敎養」

原稿모집

교양학부에서는 교양학부 동국교양지誌「동국교양」의 원고를 모집한다. 학교 오는 12월중 발간예정인 교양학부 동국교양지誌 10일까지 교양학부로 접수시킨다고 교양학부 원고지 생교에 교양학부 교양학부 교양학부

大學의 변모와 우리의 자세

<社說>

更期휴가도 끝나고 새 學期를 맞이했다. 다시 大學街를 중심으로 하는 생학이 시작되었다. 個的인 단위의 연구·학습의 생활에서 學問共同體 단위의 연구·학습의 생활로 확경이 바뀌었다. 오늘날처럼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고 이에 대응하여 知識·情報의 量的 축적과 질적 향상이 눈부신 상황아래에서는 大學內外에서 각자가 끊임없이 분발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낙오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大學도 시대에 앞장서 변모하여야 하고 大學人도 상황에 민감하게 적응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새 學期를 맞이하여 현대의 大學과 大學人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되돌아 보고 學問에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기로 한다. 먼저 현대사회에 있어서 大學은 과거와 같은 복가적 시대의 大學과 같이 여유있는 교양인의 진리탐구의 장소로서 낭만을 누리는데 그칠수는 없다는 점이다. 제일차적으로 社會的 有用性·實用性을 가진 專門知識의 습득장소로서 현행의 大學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4年制 大學敎育에서 專門과정이 만족스럽게 「마스트」 될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專門的 基礎知識은 습득하는 자세나 아부런 社會的 공부하는 태도가 없이 그 날을 지나는 大學生活은 그 結果가 값비싸다는 것을 일찌기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의 大學은 각자가 專門인 그 機能에 따라 合理的으로 형성하는 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지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직무한계가 분명하고 각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 얼격한 책임을 지고 있다.

大學社會에 있어서 學生은 未成年者가 아니라 독립된 人格者이다. 學生으로서 하여야 할일과 할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것도 일일히 누가 지시해 주기에 앞서서 自主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원래가 지식의 탐구나 학문 提起하는 것이 정시적 自主性을 前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로 과거의 大學精神는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道德的 權威로써 유지되고 각자의 自律이 感化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오늘날의 大衆化되는 大學에 있어서는 온갖 學問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大學街를 중심으로 하는 강제성이 없이 개인을 구속할 확고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個的인 단위의 연구·학습의 생활에서 學問共同體 단위의 연구·학습의 생활로 확경이 바뀌었다. 오늘날처럼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고 이에 대응하여 知識·情報의 量的 축적과 질적 향상이 눈부신 상황아래에서는 大學內外에서 각자가 끊임없이 분발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낙오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大學도 시대에 앞장서 변모하여야 하고 大學人도 상황에 민감하게 적응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새 學期를 맞이하여 현대의 大學과 大學人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되돌아 보고 學問에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기로 한다. 먼저 현대사회에 있어서 大學은 과거와 같은 복가적 시대의 大學과 같이 여유있는 교양인의 진리탐구의 장소로서 낭만을 누리는데 그칠수는 없다는 점이다. 제일차적으로 社會的 有用性·實用性을 가진 專門知識의 습득장소로서 현행의 大學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의

"자신의 發言 책임질사람"

李鍾麟 교수 〈法政大學長〉

①지성적이며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이탈되지 않은 像으로 자신의 發言에 대해서는 책임 질수 있는 사람.

②학원사회를 인식, 학생의 본분을 준수할 줄 알아야겠다. 학원선거가 부패했을때 결코 바람직한 학생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 학생 스스로가 민주주의 발전에 모체가 되어야 한다.

③솔직하다. 그러나 집행·의결기관의 혼돈을 초래할 모순이 있다. 개체 개체의 의사표시를 단순한 사정의 여의치 않아 연기해오던 71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오는 12일로 박두했다. 매해 달걀되는 학원선거 풍토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나 금번선거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바 교수 학생들의 의견도 구구하다. 〈편집자〉

학원선거가 매해 담습하고 있는 불합리와 혼露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을 피하고 그 풍토개선과 아울러 보다 바람직한 학원자치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금년 1학기에 실시하던 총학생 회장단선거를 금년 2학기(9월)로 연기한바 있다.

그동안 학교당국은 숙의를 거듭한 결과 여름방학중인 지난 7월21일에 열린 학생지도교수회의에서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학생회 회칙중 선거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했다.

이는 지난 8월4일부터 5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실시한 「리더쉽·워크샤프」과아울러 선거를 대비한 새선책으로 9월12일 실시될 금년도 본교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새로운 양상을 띨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은 지난 6월을 고비로 일단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마쳤으며 그에 앞서 각 대학은 年前까지의 非學生的 不正행위와 선거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부작용을 일소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대적인 선거정화 「캠페인」을 벌였다.

高大에서는 「大學선거는 학생이 주인이로」란 캣치 프레이즈를 내걸었으며 延大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리본을 달기도, 成大 역시 활발한 학교당국에 보다 더욱 시한 「정화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例年에 보기드문 캠페인은 지금까지의 大學선거의 난맥상을 일소하고 학원자치 풍토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학문을 이루는 것 그것은 강의를통해 쌓는다. 한학기를 마친뒤 방학이있고 방학이 끝나면 개학과 더불어 강의는 시작된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의교수와 배우는 학생들은 開講의 마음자세를 새삼스럽게 다져야할 것이다.

▲교수=개강의 별다른의미라면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되어 하는 첫강의라는데 있겠지. 무슨일이든 그 올바른마무리라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계획도 가지고 마상 나왔겠지만 「스타트」가 중요하듯 「學期之工夫는 開講日에 달려있다」 하는 말도도 있겠군.

▲학생=시작이 半이라고 하지않습니까. 무언가 새롭게 준비된 자세에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교수=내년 개학이 되면 10여일전에 개학이 되어, 그동안 제반 강의 준비를 결차를 마치고 공고된 개강일에 교수 학생들이그 진행중인데 그때쯤에야 학기중간 진행될 강의에 대한 강의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강의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우선 시내 각대학의경 우를 例로들면 延大·中大·高大·成大·商大·서울大등은 直選制, 聞選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直選制를택한 학교와, 聞選制를택한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

直選制의 경우 전체학생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게 되므로 많은 학생이 자치 활동에 보다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된 것이 되는 학원자치의 기구 개정 작업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자치의 기구 개정 작업은 학생들의 관심이 학원자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장점 있다. 반면이 선거관리가 어려워 지며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間選制의 경우 우선 선거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으로 큰 흠의없이 포편적인 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선 가장긴요한 점은 선거관계자들이 학원자치의 문제점을 지니고있다.

直選制를 취하고 있는 他大學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일반 학생들은 선거가 언제 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이고 각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인 대의원 포섭에 집중적으로 임하게 된다. 유권자의 설득공작이 「펜투·펜」으로 행해 지므로 선거가 학교 밖으로 번져 나갈 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점은 이미 현재 본교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미리 방지해야 하겠죠.

학교당국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일「입니다. 보다 학생을 사이엔 「어물쩍 개강」의 타성화된 묵계 비슷한 것이 있어. 어색하더라도 강의는 별도로 師弟間의 일로 학문하는 건강한 위치에서 지켜져야해. ▲학생=우리들자신도 좀 각오를 달리해야 하겠죠. 배워보겠다는 의지, 또 너무 긴 방학동안의 휴식 뒤에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개강을 맞아야 하겠읍니다. 방학동안 지난 학기를 반성한 뒤 자기나름대로 어떤 전환점을 삼아야 할것 같아요.

▲교수=그렇지. 단순히 종강을 기다리는마음만 개강에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져야해.

▲학생=그런데 무성의한학생도 있읍니다만, 으레 처음 며칠은 경황해버리시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니 강의시간 표 수강신청, 개강일 결차를 마치고 공고된 개강일에 교수 학생들이그 진행중인데 그때쯤에야 학기중간 진행될 강의에 대한 강의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강의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우선 시내 각대학의경 우를 例로들면 延大·中大·高大·成大·商大·서울大등은 直選制, 聞選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直選制를택한 학교와, 聞選制를택한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

直選制의 경우 전체학생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게 되므로 많은 학생이 자치 활동에 보다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된 것이 되는 학원자치의 기구 개정 작업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자치의 기구 개정 작업은 학생들의 관심이 학원자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장점 있다. 반면이 선거관리가 어려워 지며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間選制의 경우 우선 선거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으로 큰 흠의없이 포편적인 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선 가장긴요한 점은 선거관계자들이 학원자치의 문제점을 지니고있다.

直選制를 취하고 있는 他大學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일반 학생들은 선거가 언제 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이고 각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인 대의원 포섭에 집중적으로 임하게 된다. 유권자의 설득공작이 「펜투·펜」으로 행해 지므로 선거가 학교 밖으로 번져 나갈 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점은 이미 현재 본교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미리 방지해야 하겠죠.

학교당국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일「입니다. 보다 학생을 사이엔 「어물쩍 개강」의 타성화된 묵계 비슷한 것이 있어. 어색하더라도 강의는 별도로 師弟間의 일로 학문하는 건강한 위치에서 지켜져야해. ▲학생=우리들자신도 좀 각오를 달리해야 하겠죠. 배워보겠다는 의지, 또 너무 긴 방학동안의 휴식 뒤에 한 학기를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개강을 맞아야 하겠읍니다. 방학동안 지난 학기를 반성한 뒤 자기나름대로 어떤 전환점을 삼아야 할것 같아요.

▲교수=그렇지. 단순히 종강을 기다리는마음만 개강에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져야해.

보다나은 大學生活을 위한

어프로우치 APPROACH ⑭

교수와 학생의 學園선거를 위한제언

"건전한 精神자세 부터"

徐廷甲 교수 〈法政大〉

①정직·공정하고 학교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버릴 수 있는 학생이 요망된다. 물론 성격도 우수하여야 할 것이다.

②선거운동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금품과 유흥이 따르는선거운동은 지양해야한다. 학생자신의 건전한 정신적 자세부터 시급하다.

③선거자체가 간소화 되어 충분한 학생들의 직접의 사표시는 아니므로 전체 의견반영에는 부적당하다. 선거인이 의사표현에 의해 파우되는 선거가 이룩되어야 실효를 볼 것이다.

"각 學會활동을 살려야"

韓相璡 교수 〈佛敎大〉

①활력이 없고 깨끗한 사람. 東大를 부흥시킬 포부를 가지고 한국의 대학생으로써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人間像.

②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답지 않게 타락했다. 현상태에서는 차라리 학생자치가 없는것만도 못하다. 왜 그렇게도 학생들이 근시안적인가. 이상 이왕 개정할 바에야 各學會활동을 살리는 우선 유권자들의 수준향상에 달려있다. 학생자신의 자치활동에서의 배려도 있어야 했다. 학생자치의 자세도 각성해야 겠지만 최민한 방학에서의 배려도 있어야 겠다.

"女學生會 승격 고무적"

尹乙順 〈여학생처〉

①전체학생을 이끌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 신뢰감과 양심적인 봉사정신을 가진 훌륭한 致의 학생.

②금전공세능으로 기성선거 처럼 타락하고 나 학교당국은 이를 교내로 이끌어 들여야만 한다. 학우의 우정으로 시종하는 선거풍토가 아쉽다.

③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된 것은 환영하나 간선제의 부작용인 이면선거가 우려된다. 여학생회가 翼大지위로 승격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앙케이트

① 귀하가 원하는 學生會長像은?

② 귀하는 學園선거운동의 양상을 어떻게 봅니까?

③ 귀하는 금번개정된 선거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됨)

"시급한 유권자 수준향상"

李用熙 〈農工科〉

①학생다운 학생이면 된다.

②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진것 같다. 학원선거의 경화는 우선 유권자들의 수준향상에 달려있다. 금력 또는 폭력을 배격한다면 자연히 부정과 타락현상은 일소될 것이다.

③개정된 회칙은 무리가많다. 특히 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있다.

"의결부에서 통과 됐어야"

李炳天 〈農學科〉

①편파적이고 부정과 타협하는 학생보다, 안목이 넓은 凡國人의 대변인이될 아량이있는학생

②학원선거운동은 社會一面에서 행해지는 타락선거 양상을 벗어나 좀더 학구적이어야 할것이다.

③개정은 부족이나 좀더 학구적인 조치였겠지만 최소한 6개월전에 학생회 의결부에서 통과, 공포 시행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무관심으로 흐르기 쉬워"

洪在高 〈食工科〉

①학생대표로서의 자질과 人格을 갖춘 학생.

②부부 물지각한 일부 보자에 의해 선거를 한낱 手段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자신들은 적극적인 거부와 타기의 위치를 지켜야한다.

③직선제였던 종전까지도 선거에 상당수의 학생이 외면하였는데, 이제 더욱 무관심으로 흘러버릴 염려가있다. 소수학생들의 야합으로 학생자치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자신의 위치 지키도록"

申世圭 〈國文科〉

①학생대표로서의 자질과 人格을 갖춘 학생.

②원동력을 발휘할수 있는 열정을.

③허황하고 장황한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것 같은 선거풍토를 개탄한다. 후보자의 개인적인 자각도 문제지만 학교당국의 적절한 지도조치도 요구된다.

③한낱 개인의 정신적 요소도 많이 감소될을 믿는다. 그러나 믿는다. 아야한다. "학"은 함상 자신의 위치를 벗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학상 자신의 발치하는 지름길이다.

"法 운영의 妙가 문제"

신돌영 〈法學科〉

①자기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人物.

②타락해가는 학생자치 활동의 정화 방안.

③제도의 장점은 없다고 병폐를 후보자가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안을 본다. 「法은 운영의 妙」라는 말과 같이

<23>

불다여 당신은 苦를…

參禪으로 잡다한 번뇌씻어

東國思想硏究會 夏季修練大會 회원 일행은 7월11일 오전9시30분 용산역을 출발, 장도에 올랐다。 조계사 홍정석 교수님 도교수를 모시고 대전을 거쳐 목적지인 俗離山 法住寺에 도착하니 7시가 다 되어 山寺의 첫밤을 마지했다。

비 갠 후의 숲은 한껏 푸르름을 더한채 상쾌한 촉감이 앞으로의 修練生活의 거듭나와 더불어 이곳에 거주하리라 하는 기쁨을 자아내게 했다。

男女 각기 정해진 방에 여장을 풀고 정에서 마련해 주는 저녁, 공양을 끝내고 첫날은 피로를 풀기위해 휴식에 들어갔다。

웅장한 침묵인양 깊은 정적속에 은은한 절 뒷켠 냇물소리는 한층 더 흥취를 돋운다。 이틀을 더듬어 냇가에가앉았다。

서늘한 밤 공기가 피부에 젖어드니 말연히 잠기는 俗離感이 속세를 떠난 것이라 충분히 여겨진 山의 精氣에 휘감긴 때문이리라。

7월12일。 오전에 올린 結制式과함께 修練생활이 시작되었다。

죽비소리가 울리고나면 의연한 가부좌의 不動은 열정에 이른듯 수련생들의 표정은 진장의 연속이다。 參禪시간이 끝나고 說法이 연이어 계속된다。 法교수님의 「현대적인 佛敎의 교단과 해결」은 수련생들을 佛道의 길에 심취하게 했다。

오후 늦게 벌어진 스님들과 배구 경기는 俗離 많은 도움이되었다。

저녁공양이 끝난후 예불殿의 넓은 法堂엔 촛불이 조용히 비추고 이어 참선이 있는 후 연산 수정암에 올랐다。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은 범추사, 경내의 미륵 불과 정진은 내마음의 모든 짐이를 다 책워버린다。

한다운 희열이 가슴에 충만하였다。

일정표대로 오전은 설법과 참선을 하고 점심 공양이 끝난다음 스님의 설법과 참선이 있는 후 번뇌 참선을 하고 점심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은 범추사, 경내의 미륵 불과 지도 실부진의 노고 그런대로 높이 살만한 것이었다。

아침 4시반 공양으로 예불, 시작 되는 사원생활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소한것이어서 웃지 못할 대목도 있었지만 유익한 수련생활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7월24일。 사람은 환경에 지배된다 함이 나같은 愚人에게는 적합한말인것 같다。 우울감이 엄습하고 자책의 심정만이 침싸인 마음가짐이 끼낀 지붕마루 풍상에시달린 석소상, 절을 둘러싸고 멀리 깊숙한 原始林, 움직인 기둥에 우람한 솔을 무언가 비밀스럽게 속삭이 가슴 속을 차분히 채워준다。

修練生活面에서도 그렇다。 서보의 점촉 속에서 자기를 찾고 또 개선하려는 克己力, 協同하는 마음가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등, 수이 배울 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같이 念佛에 精進을 거듭하고 함께 고초를 겪어나가는 생활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느낄때마다 새삼스러이 수련의 생활의 중요함을 알것같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며 착잡한 마음이 여러사람 사이에서 和合되질 않는다。 탓일러마는 도시 여정을 모르겠으니 그러는 자신이 이 번 「워크샵」을 계기로 자기를 찾고 또 개선하려는 그곳의 교육적 이념이 시작된다。 청아한 그 음을 파고든다。

「불다여, 당신은 苦를 여의었다 합니다。 당신은 제가 수궁이 가는 많은 말씀을 법당에 들려주시는 것이 3배를 했다。 打鐘 심정이건만 또 다시 경청한 생각에 해매임은 무슨 까닭일까?

7월15일。 새벽에 일어나니 비가 후줄근히 내리고 있었다。 개운치, 못한 심정이 법당에 들어가 3배를 했다。 청아한 그 이 시작된다。 종소리가 가슴을 파고든다。

「불다여, 당신은 苦를 여의었다 합니다。 당신은 제가 수궁이 가는 많은 말씀을 백우고자 하였읍니다。 불다여, 당신의 자유롭할 수 있는 미소속에 에기할 수 있는 착실한 人間이 되고픈 一念 입니다。

大望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당신에게 참배하리다。

7월16일。 또 다시 출기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일정인 문장대에 등산계획이 무너져 실당이 컸으나 내일로 미루어져 실날 修練生活이라고 말하며 몰한 人間이 되고픈 一念 입니다。

7월16일。 또 다시 출발을 서두르게 합니다。 참으로 미약한 者이기에 完全한 人格者이신 당신의 말씀을 백우고자 合掌을 하였읍니다。 불다여, 당신의 자유롭할 수 있는 미소속에 에기할 수 있는 착실한 人間이 되고픈 一念 입니다。

여름 放學리포트

◇… 금번 여름방학중에도 「써클」및 학회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이 학생들에의해 계획되었으며 시…◇
◇…도되었다。 봉사활동, 수련대회등 일련의 학생활…◇
◇…동은 사회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건전한 참여…◇
◇…였으며 학생 자신들을 위해서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학생들의 이와같은 다양한 활동기를 리…◇
◇…포트로 꾸며 본다。 <편집자>…◇

修練記

리더쉽·워크샵

——속리산 법주사에서

大學의 학생자치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질약하고 또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대로 인한 大學人 자의 상호불신, 무관심 풍조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학생적 포말과 선거양상은 대학내의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교 자치활동의 경우, 고질적인 난맥상이 문제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적정한지도 방향이 학생지도 연구소와 학생처 당국자에 모색되어왔다。

학생지도연구소에서 이러한 「학생자치不在」현상 생지도자 자질향상및 인적도야를 계획, 지난 8월4일부터 8일까지 충한 것!。 교육에 자발적으로 울한 학생들은 주에서 제1회 「리더쉽·워크샵」을 위해 2·3학년생들로서 그 중에는 9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것으로 알려진학생과 그참모진이 대학학보는 역대 배울해 학생 부부를 많이 이었다。 대학생 찬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교육적이면서도 알차야 함전도 없지않았다。 「리더쉽·워크샵」의 의미의 지않았겠냐는 말들이 있되고 또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같은과 S군은 「워크샵」에대

주입식 지양해야 올바른 인식긴요

교육학강은 김홍찬의 「동양의 전학이념」을 비롯하여 「민족적이며 보교적 지도이념을 넓은 범위에서 교육적이면서도 알차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반성되야 함전도 없지않았었더라면 좀더 효과적인 「워크샵」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기 하였는데 경영과의 려보로 건전한 의견을 제K군은 「다음부터는 학생처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는 점을 회상한다」고 그러기를 희망한 S군은 「워크샵」에대

7월21일 아침, 김명연(農4)옹 지대장은 「농어촌 연구부 소야 지구 봉사대원 9명은 인천 부부에서 경기도 소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모두들 앉으로 벌일 봉사활동에 뿌듯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배의 닫조로 운「모터」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흐뭇한 표정들이었다。 약 10일간으로 예정했던 봉사활동기간 이었으므로 생활 일용품과 선물등 짐이 많아 운반에 다소 힘은 들었으나 인천에서 출발한지 4시간 만에 소야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이장의 안내로 숙소를 정하고 짐을 정리한후 우리는 마을 유지분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나니 어느듯 섬의 첫밤은 닥아왔다。

제2일。 아침 6시에 기상한 전대원은 다짐 하면서 봉사한 첫대원은 다짐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해변으로 집합, 체조와 놀은 행진곡을 부르며 구보를 했다。

그리고 곧 男女대원들은 일제히 제초작업과 조기 청소에 들어 갔으며 女대원들은 식사준비에 바빴다。 들에 나온 어린이 들은 무척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체조는 물론 제초작업에도 고기리 손으로 도와 주었다。

오전 9시부터 본격활동으로 들어간 대원들은 우선 크게 아동교육, 부녀지도, 의료봉사, 근로봉사, 청소년 지도와 육성, 섬 일지도등 여러파트로 나눠 시작했다。

나는 아동교육과 부녀지도(소비조합육성) 를담당했으며 시간 나는데 다른 파트에도 활동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첫번째 부딪치게 되었다。 의료활동을 들고 순회 진료에 나섰을때였다。

아직도 도서지방 주민들은 우리들의 봉사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패쇄적인 경영이 진었다。 우리들의 봉사활동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 우리는 제일 첫 어느 한도에 있었으므로 약이 모자라 손을 쓰지못해 할때는 안타깝기만 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비조합을통해 그곳 주민들도 의약품을 쓸수 있어야 할것이 라 생각했다。 그리고 당국에 서도 순회진료반을 수시로 보내야 할것같았다。

어린이들은 「국민학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을 시작했다。 장소는 한 「봉사개량 구락부」는 소독작업은 계속되었다。 4시부터 우물파기와 도로보수가 다시 시작되어 저녁7시반경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식사후 부녀반과 아동반으로 나눠 대민교육을 강좌하는 한편 매일 밤 반성과 다음날 계획을 위한 각조장회의를 열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그곳은 면소재지로부터 2㎞떨어진 90호의 5백여 인구를 지닌 창평군 도창마을 재인식 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곳은 취약지구에 해당되므로 반공교육의 강화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5가지의 「워크샵토픽」외에 기본적인 소독 작업과 아동교육, 언어순화운동, 노동력 동원 등이 이곳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긴 했으나 일에 지친부녀자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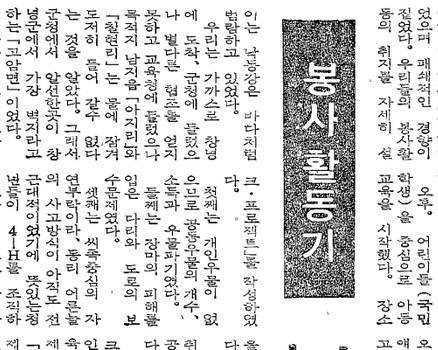
부녀들 까지 많은 노동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생활상태는 향상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성전지를 통해 보면 농민인구가 어언인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였으나 부녀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한편 근로봉사는 주로 오전에 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했다。 조사에나타난 여론을 보면 도로보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유는 질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 침수등 여러가지 애로가 많아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형이 그러하여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벅찼다。 그의에 수물 변소 보수도등의 소독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는 생활상태가 유택하진 않으나 재래의 농업경영으로는 수확의 증가가 요원할것 같았다。 따라서 매해 도시로 나오는 인구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점을 고려해 봉사대에서 발기한 「농사개량 구락부」는 앞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근해 도서, 연안지방에는 화세가 되고 있는 해태양식은 이곳에서도 권장해 볼만 했으나 그곳은 소득원이 없을것 같다。

소홀할수없는 관심

섬女性의 노동력은 절대적



봉사활동기

도시와 농촌의 간극

조화와 공존은 이해있어야

이는 낭공장은 바다처럼 넓탁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까스로 창녕에 도착, 군청에 들렀으나 별다른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교육청에 들렀으나 특별지 남지음과 「지리리」는 몰에 점겨 갈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부딪치게 되었다。 의료활동을 들고 순회 진료에 나섰을때였다。

아직도 도서지방 주민들은 우리들의 봉사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패쇄적인 경영이 진었다。 우리들의 봉사활동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 우리는 제일 첫 어느 한도에 있었으므로 약이 모자라 손을 쓰지못해 할때는 안타깝기만 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비조합을통해 그곳 주민들도 의약품을 쓸수 있어야 할것이 라 생각했다。 그리고 당국에 서도 순회진료반을 수시로 보내야 할것같았다。

어린이들은 「국민학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을 시작했다。 장소는 한 「봉사개량 구락부」는 소독작업은 계속되었다。 4시부터 우물파기와 도로보수가 다시 시작되어 저녁7시반경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식사후 부녀반과 아동반으로 나눠 대민교육을 강좌하는 한편 매일 밤 반성과 다음날 계획을 위한 각조장회의를 열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그곳은 면소재지로부터 2㎞떨어진 90호의 5백여 인구를 지닌 창평군 도창마을 재인식 시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곳은 취약지구에 해당되므로 반공교육의 강화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5가지의 「워크샵토픽」외에 기본적인 소독 작업과 아동교육, 언어순화운동, 노동력 동원 등이 이곳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긴 했으나 일에 지친부녀자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한편 근로봉사는 주로 오전에 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했다。 조사에나타난 여론을 보면 도로보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유는 질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 침수등 여러가지 애로가 많아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형이 그러하여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벅찼다。 그의에 수물 변소 보수도등의 소독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긴 했으나 일에 지친부녀자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부녀들 까지 많은 노동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생활상태는 향상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성전지를 통해 보면 농민인구가 어언인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녀지도는 시간이 없으므로 짧을내 강행하긴 했으나 일에 지친부녀자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한편 근로봉사는 주로 오전에 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했다。 조사에나타난 여론을 보면 도로보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유는 질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 침수등 여러가지 애로가 많아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형이 그러하여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벅찼다。 그의에 수물 변소 보수도등의 소독 작업에